

보도시점 (전매체) 10.1(수) 16:30

중기부, 추석 성수품 수급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현장 점검

- 한성숙 장관,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 찾아 성수품 수급동향 및 장바구니 가격동향 점검
-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, 상생페이백 등 소비촉진 대책이 민생경기 회복과 연계되도록 전력
-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, 대형마트 대비 19.9% 저렴(4인 기준)

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(수)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, 상인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.

1960년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독립문 영천시장은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떡 도매시장으로 출발해 6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힌다.

이날 차담회에서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, 상생페이백,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정부의 소비진작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. 상인들은 “독립문 영천시장은 SNS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유명 점포들이 다수 영업하고 있으며, 앞으로 영천시장이 한국 대표 관광·문화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”며, “특히 이번 추석 연휴때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주길 희망한다”고 덧붙였다.

한성숙 장관은 “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거리, 떡, 과일 등의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고,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

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”고 말하며, “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, 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이 추석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, 민생경기 회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답했다.

이어, “올해 추석 차례상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7만 4천원 저렴하다는 통계도 있으니,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에 전통시장에 방문하셔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298,766원, 대형마트 373,164원으로,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74,398원(19.9%) 저렴*하며, 전체 27개 조사 품목 중 20개 품목**이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.

* 추석 제사용품 27개 품목 가격 비교 조사(소진공 가격비교 조사, 9.8~15)

** 고사리(62.9%), 간도라지(62.1%), 동태포(43.7%), 대추(41.0%), 송편(32.3%), 곶감(29.6%) 등

이후 한 장관은 가업 승계한 청년상인 점포와 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한과, 강정, 송편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실 전통시장과	책임자	과 장	서정언 (044-204-7890)
		담당자	사무관	유주현 (044-204-7901)



참고 1

서울 독립문 영천시장 현장방문 개요

□ 방문개요

- (일시) 10. 1. (수) 16:30 ~ 17:30
- (장소)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(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7)
- (참석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상인회장 등
- (주요내용) 상인 애로청취 및 격려(차담회), 점포 격려 방문 등

□ 진행순서

행사내용	시간	세부 내용	주요내용
차담회('30)	16:30~17:00	차담회	(장소) 카페떡마을**
점포격려 방문 ('30)	17:00~17:30	❶ 독립문떡집	(구매) 한우 국거리 등
		❷ 아리곳간	(구매) 강정, 한과 등
		❸ 밀알축산	(구매) 송편, 인절미 등
		❹ 시장청과	(구매) 사과, 배 등

* 하차장소 :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68(영천마트)

** 차담회 장소 : 서대문구 통일로 189-1(영천시장내 카페떡마을)

참고 2

추석 명절 가격비교 조사결과

